

초기 경맥명칭을 통해 살펴본 경락음양개념의 의의

정혜진¹ · 백유상² · 구성태³ · 임사비나¹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및 ²원전학교실, ³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구조의학부

The Significance of Yin-yang Theory in Meridians Observed through the Earlier Names

Hye-jin Jung¹, You-sang Baik², Sungtae Koo³, Sabina Lim¹

¹Department of Meridian and Acupoint, and ²Korean Medical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³Division of Meridian and Structur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rough comparison between Mawangdui Silk Manuscripts and Huangdi's Internal Classic, this study aimed to put an emphasis on clinical significance of Yin-yang theory in Meridians.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documents recorded in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Zu Bi Shi Yi Mai Jiu Jing and Miraculous Pivot to compare of the character of meridian names. **Results :** In the naming of meridians, three yin and three yang were accepted earlier than Viscera and Bowels. Three yin and three yang play important role in relation with division of a human body.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importance of Yin-yang theory in meridian system.

Key words : Mawangdui,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Zu Bi Shi Yi Mai Jiu Jing, Huangdi's Internal Classic, Miraculous Pivot

서론

경락이론은 한의학에서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체의 생리와 병리,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황제내경』(이하 『내경』)에 “십이경맥은 사람이 생존하는 수단이요, 질병이 형성되는 원인이요,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요, 질병이 치유되는 곳이므로 초학자는 경맥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의학에 조예가 깊은 자라 할지라도 경맥에 주의해야 한다.”¹⁾ 라고 하여 의학에 있어서 경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경맥은 생사를 결정하고 모든 병을 다스리며 허실을 조절하므로 경맥에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²⁾고 하여 임상치료에서 경락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맥 명칭이 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양학문에서는 학문의 기초를 세우는데 있어 이름을 정하는 것(正名)을 매우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경맥 명칭이 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조사 분석하면 경맥 명칭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경락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의 핵심적 작용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내경』 중 『영추·본수』(이하 「본수」)에서는 수족+삼음삼양으로 십이경맥을, 『영추·경맥』(이하 「경맥」)에서 장부+수족+삼음삼양으로 십이경맥을 명명하였는데, 「경맥」에서 경맥을 음양, 즉 삼음삼양과 더불어 오행속성에 따른 장부의 명칭을 도입하여 명명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진한시기에 이르러 오행학설이 유행하여 의학에 도입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내경』이 이러한 시대

Received November 24, 2015, Revised December 21, 2015, Accepted December 21, 2015

Corresponding author: **Sabina Lim**

Department of Meridian and Acupuncture Point,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oeki-dong,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61-0324, Fax: +82-504-072-7831, E-mail: lims@khu.ac.kr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적 배경 하에 편찬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³⁾. 그러나 1973년 말 마왕퇴 한묘에서 발굴된 백서(이하 마왕퇴 『백서』) 중에서 『내경』과는 다른 형태의 경맥명이 기재되어있는 「음양십일맥구경」(이하 「음양」)과 「족비십일맥구경」(이하 「족비」)이 출토되면서 경맥의 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왕퇴 『백서』가 출토되기 이전에는 초기 경맥의 중심사고체계를 분석함에 있어 『내경』을 토대로 연구되었으므로 삼음삼양과 오행 두 개념 중에서 어느 학설이 초기 경맥 명칭 형성과정에 먼저 도입되었는지는 서지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내경 각 편이 여러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내용이 현재의 경맥학설에 부합되는 「경맥」 편이 그렇지 않은 「본수」 편보다 후대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경맥」과 「본수」의 작성 시기에 대한 선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왕퇴 『백서』 출토 이후의 관련 선행연구로는 마왕퇴 『백서』와 『내경』의 경맥 명칭의 변화, 경맥의 수, 순행 및 장부연계 여부 및 병증을 고찰한 연구⁴⁾, 「음양」과 「족비」이 별개로 경맥이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한 연구⁵⁾ 및 문헌 저작의 선후관계와 순행 및 병증을 논한 연구^{6,7)}가 있었고, 관련 중국논문으로는 ‘마왕퇴 『백서』·경맥편」 맥기유주사상관구(马王堆 『帛书』·经络篇)脉氣流注思想管窺⁸⁾에서 경락 유주방향에 대한 연구와, ‘고대 경락 개념과 현대 경락 연구(古代经络概念與現代经络研究)⁹⁾에서 초기 경락 형성을 소개하고 이를 현대 연구와 연결시킨 연구가 있었으며, ‘경근경락의초시형식(经筋-经络的初始形式)¹⁰⁾에서 마왕퇴 『백서』의 초기 경락형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마왕퇴 『백서』와 『내경』의 경맥 명칭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경맥명칭에서 사용된 음양, 즉 삼음삼양이 초기 경맥 형성의 중심사고체계였음을 밝힌 논문은 없었다.

이에 저자는 이 연구에서는 마왕퇴 『백서』의 「음양」 및 「족비」과 『내경』의 「경맥」 편에 나타난 경맥 명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경락 형성 초기에 경맥을 특징짓는 중심사고체계가 음양론에 기반한 삼음삼양임을 밝힘으로써 경락에 있어 삼음삼양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선행연구조사

이 연구에 앞서 이 연구의 목적인 “초기 경맥명칭을 통해 살펴본 경락음양개념의 의의”와 유사한 연구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왕퇴 『백서』의 초기 경맥 명칭을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2월, 한국학술정보사이트(kiss.kstudy.com), 한국전통지식포털(www.koreantk.com), DBpia(www.dbpia.co.kr) 및 학술교육원(www.earticle.net)에서 검색어 “마왕퇴의서” 또는 “족비십일맥구경” 또는 “음양십일맥구경”으로 검색하여 찾은 37편과 원전학 전문가로부터 이 연구주제와 관련 중국논문 3편과 합한 총 40편에서 중복되는 논문 12편을 제거한 후 28편을 추출하고 다시 제목을 보고 스크린하여 연구주제와 거리가 있는 맥법에 대한 연구 2편, 병증과 치료법에 관한 연구 11편 및 기타 연구 2편 등 총 15편을 배제하고 13편을 추출한 후 원문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13편 모두 체계적 고찰에 포함하였다. 확보한 총 13편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 논문 중에는 음양, 즉 삼음삼양이 초기 경맥 형성의 중심사고체계였음을 밝힌 연구는 아직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 연구에 착수하였다(Fig. 1) (Supplementary Table 1. Summary of Studies Selected for Systematic Review).

2. 이 연구의 조사대상 문헌 및 조사방법

이 논문에서는 마왕퇴한묘백서정리소조(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가 문물지에 낸 자료를 1979년 책으로 출간한 『마왕퇴한묘백서 오십이병방』¹¹⁾에 포함된 「음양」 갑본과 「족비」 을 인용하여 경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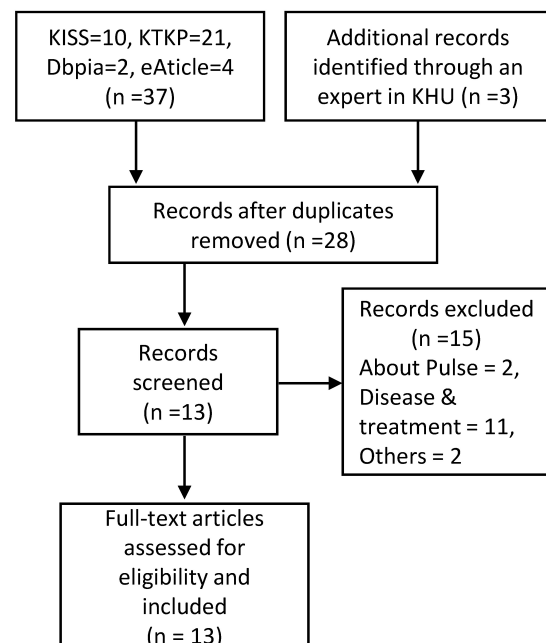


Fig. 1. Flowchart of Literature Review Process.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TKR: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DBpia: NuriMedia Co., Ltd, eArticle: Academic Training Institute.

명칭, 유주에서 장부의 언급 및 유주 방향과 분지여부를 조사하여 각각 도표화 하였다. 원문은 가능한 원래의 글자를 쓰되, 간체자는 번체자로 수정하였으며, 입력이 어려워 임의로 변경한 글자는 각주로 원문의 글자를 표기하였다.

조사대상 문헌인 『마왕퇴한묘백서 오십이병방』의 출판 과정을 살펴보면, 1973년 12월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 3호(號) 한묘(漢墓)에서 한 무더기의 백서(帛書)와 간서(簡書)가 출토되었다. 백서(帛書)란 비단 위에 쓴 글을 일컬으며 간서란 종이 발명되기 전에 문자를 적는데 쓰인 대나무 쪽을 일컫는다. 약 20,000여 자(字)가 쓰여 있는데 대부분 서명(書名)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15 종류로 구분된다.

- 1) 족비십일경구법(足臂十一經灸法)
- 2) 음양십일경구경(陰陽十一經灸經)(甲本)
- 3) 맥법(脈法)
- 4) 음양맥사후(陰陽脈死候)
- 5)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

이상 5 종(種)은 모두 한 권(卷)의 백서(帛書)에 수록되어 있다.

- 6) 각곡식기(却穀食氣)
- 7) 음양십일맥구경(陰陽十一經灸經)(乙本)
- 8) 도인도(導引圖)

이상 3 종(種)은 한 권의 백서(帛書)에 수록되어 있다.

- 9) 양생방(養生方)(백서 한 권)
- 10) 잡료방(雜療方)(帛書 한 권)
- 11) 태산서(胎產書)(帛書 한 권)
- 12) 십문(十問)(竹筒 101 枚)
- 13) 합음양(合陰陽)(竹筒 32 枚)
- 14) 잡금방(雜禁方)(木牘 11 枚) 목독이란 글자가 새겨진 목판이다.
- 15) 천하지도담(天下至道談)(竹筒 67 枚)

1979년에 (1)(2)(3)(4)(5)를 합하여 『마왕퇴한묘백서 오십이병방』이란 책명(冊名)으로 출간했다. 또 1985년 이상 15종(種)을 모두 합쳐 『마왕퇴한묘백서』란 이름을 붙여 출판했다. 이 중 「음양」갑본과 을본, 「족비」에는 인체의 11개 경맥의 명칭, 유주경로, 질병증후와 치료법칙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내경』은 전국시대 초기부터 후한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서 여러 의가들의 저서가 융합하고 보정되어진 서적이다. 수나라 사람인 양상선은 『내경』을 『소문』과 『영추』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영추』는 침구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나라 왕

빙이 운기칠편(運氣七篇)인 「천원기대론」, 「오운행대론」, 「육미지대론」, 「기교변대론」, 「오상정대론」, 「육원정기대론」, 「지진요대론」을 추가한 편집본을 기반으로 한 홍원식의 『정교황제내경』 초판(1981년 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경맥 명칭과 유주가 자세히 기술된 『영추』의 「본수」편과 「경맥」편을 중심으로 경맥 명칭, 유주에서 장부의 언급 및 유주 방향과 분지여부를 조사하여 마왕퇴 『백서』의 경맥에 대한 기술과 함께 각각 도표화한 후 비교하였다.

『해부학용어집』 6판(2014 대한해부학회)의 해부학용어를 경맥 유주에 대한 해석 시 사용하였다.

결 과

1. 마왕퇴 『백서』와 『황제내경』에 나타난 경맥 명칭

1) 음양십일맥구경갑본¹²⁾: 臂鉅陰脈, 齒脈, 陽明脈, 大陰脈, 臂少陰脈, 肩脈, 鉅陽脈, 少陰脈, 耳脈, 少陽脈, 厥陰脈.

2) 족비십일맥구경¹³⁾: 臂太陰溫, 臂陽明溫, 足陽明溫, 足泰陰溫, 臂少陰溫, 臂太陽溫, 足泰陽溫, 足少陰溫, 臂少陽溫, 足少陽溫, 足脊陰溫.

3) 영추 · 본수¹⁴⁾: 手太陰經, 手陽明經, 足陽明經, 足太陰經, 手少陰經, 手太陽經, 足太陽經, 足少陰經, 手少陽經, 足少陽經, 足厥陰經.

4) 영추 · 경맥¹⁵⁾: 肺手太陰之脈, 大腸手陽明之脈, 胃足陽明之脈, 脾足太陰之脈, 心手少陰之脈, 小腸手太陽之脈, 膀胱足太陽之脈, 腎足少陰之脈,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三焦手少陽之脈, 膽足少陽之脈, 肝足厥陰之脈(Table 1).

2. 마왕퇴 『백서』와 『황제내경』에 나타난 경맥 유주에서 장부의 언급

『마왕퇴한묘백서 오십이병방』에서 이체자, 음을 빌려 쓴 글자는 ()로 표기하였다. 원문에는 빠져있으나 의미상 또는 기타 고문헌을 참조하여 보충한 글자는 【 】로 표기하였다.

1) 음양십일맥구경갑본¹⁶⁾: “臂鉅陰脈(脈)...出臂【內陰, 人心】”, “大(太)陰脈(脈), 是胃脈毀(也). 彼(被)胃...”, “少陰脈(脈)...貫(繫)于腎...”

2) 족비십일맥구경¹⁷⁾: “臂泰(太)陰溫(脈)...之心”, “足少陰溫(脈)...出肝...”

3) 영추 · 본수¹⁸⁾: “肺出於少商...手太陰經也”, “心出於中沖...手少陰也”, “肝出於大敦...足厥陰也”, “脾出於隱白...足太陰也”, “腎出於湧泉...足少陰經也”, “膀胱出於至陰...足太陽也”, “膽出於竅陰...足少陽也”, “胃出於厲兌...足陽明胃脈也. 大腸小腸, 皆屬於胃, 是足

Table 1. Meridian Names in Mawangdui Silk Manuscript and Huangdi's Internal Classic

WHO	Mawangdui Silk Manuscript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Mawangdui Silk Manuscript Zu Bi Shi Yi Mai Jiu Jing	Huangdi's Internal Classic, Ben shu in Miraculous Pivot	Huangdi's Internal Classic, Jing mai in Miraculous Pivot
LU	臂鉅陰脈	臂太陰溫	手太陰經	肺手太陰之脈
LI	齒脈	臂陽明溫	手陽明經	大腸手陽明之脈
ST	陽明脈	足陽明溫	足陽明經	胃足陽明之脈
SP	大陰脈	足泰陰溫	足太陰經	脾足太陰之脈
HT	臂少陰脈	臂少陰溫	手少陰經	心手少陰之脈
SI	肩脈	臂太陽溫	手太陽經	小腸手太陽之脈
BL	鉅陽脈	足泰陽溫	足太陽經	膀胱足太陽之脈
KI	少陰脈	足少陰溫	足少陰經	腎足少陰之脈
PC	-	-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TE	耳脈	臂少陽溫	手少陽經	三焦手少陽之脈
GB	少陽脈	足少陽溫	足少陽經	膽足少陽之脈
LR	厥陰脈	足春陰溫	足厥陰經	肝足厥陰之脈

Table 2. Viscera and Bowels mentioned in Mawangdui Silk Manuscript and Huangdi's Internal Classic

WHO	Mawangdui Silk Manuscript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Mawangdui Silk Manuscript Zu Bi Shi Yi Mai Jiu Jing	Huangdi's Internal Classic, Ben shu in Miraculous Pivot	Huangdi's Internal Classic, Jing mai in Miraculous Pivot
LU	Heart	Heart	Lung	Lung, large intestine, stomach
LI	-	-	Large intestine	Large intestine, lung
ST	-	-	Stomach	Stomach, spleen
SP	Stomach	-	Spleen	Spleen, stomach, heart
HT	-	-	Heart	Heart, small intestine, lung
SI	-	-	Small intestine	Small intestine, heart, stomach
BL	-	-	Bladder	Bladder, kidney
KI	Kidney	Liver	Kidney	Kidney, bladder, liver, lung, heart
PC	-	-	-	Pericardium, triple energizers
TE	-	-	Triple energizers	Triple energizers, pericardium
GB	-	-	Gallbladder	Gallbladder, liver
LR	-	-	Liver	Liver, stomach, gallbladder, lung

陽明也”，“三焦者...手少陽經也”，“手太陽小腸者...手太陽經也”，“大腸上合手陽明...手陽明也”

4) 영추·경맥¹⁹⁾: “肺手太陰之脈...下絡大腸，還循胃口，上膈屬肺，從肺系橫出腋...”，“大腸手陽明之脈...下入缺盆絡胃，下膈屬大腸...”，“胃足陽明之脈...下膈屬胃絡脾...起於胃口...”，“脾足太陰之脈...入腹屬脾絡胃...復從胃...注心中”，“心手少陰之脈 起於心中，出屬心繫，下膈絡小腸...從心繫上挾咽...復從心繫卻上肺...”，“小腸手太陽之脈...入缺盆絡心...抵胃屬小腸...”，“膀胱足太陽之脈...絡腎屬膀胱...”，“腎足少陰之脈...貫脊屬腎絡膀胱...從腎上貫肝膈，入肺中...從肺出絡心...”，“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出屬心包絡...歷絡三焦...”，“三焦手少陽之脈...散於心包...循屬三焦...”，“膽足少陽之脈...貫鬲絡肝膈...”，“肝足厥陰之脈...挾胃屬肝絡膽...復從肝別貫膈，上注肺”(Table 2).

3. 마왕퇴 『백서』와 『황제내경』에 나타난 경맥 유주 방향 및 분지여부

1) 음양십일맥구경²⁰⁾: 견맥(肩脈)은 귀 뒤에서 손등으로, 태음맥(太陰脈)은 위(胃)에서 내측 복사뼈 위쪽으로 유주해 원심성을

보이고, 나머지 비거음맥(臂鉅陰脈), 치맥(齒脈), 양명맥(陽明脈), 비소음맥(臂少陰脈), 거양맥(鉅陽脈), 소음맥(少陰脈), 이맥(耳脈), 소양맥(少陽脈), 쥘음맥(厥陰脈)이 구심성으로 순행하며, 경맥 모두 분지가 없다.

2) 족비십일맥구경²¹⁾: 비태음맥(臂太陰溫), 비양명맥(臂陽明溫), 족양명맥(足陽明溫), 족태음맥(足泰陰溫), 비소음맥(臂少陰溫), 비태음맥(臂太陽溫), 족태양맥(足泰陽溫), 족소양맥(足少陰溫), 비소양맥(臂少陽溫), 족소양맥(足少陽溫), 족태음맥(足春陰溫) 모두 사지에서 시작해 흉복부나 머리에서 끝나는 구심성으로 순행하며, 족태양맥과 족소양맥을 제외한 나머지 경맥은 분지가 없다.

3) 영추·본수²²⁾: 手太陰經, 手陽明經, 足陽明經, 足太陰經, 手少陰經, 手太陽經, 足太陽經, 足少陰經, 手少陽經, 足少陽經, 足厥陰經 모두 사지말단에서 시작하여 체간을 향해 흐른다. 경맥의 분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4) 영추·경맥²³⁾: 수삼음맥(手三陰脈)은 체간에서 손끝으로 향하고, 수삼양맥(手三陽脈)은 손끝에서 머리로 향하고, 족삼양맥(足三陽脈)은 머리에서 발끝으로 향하고, 족삼음맥(足三陰脈)은 발끝

Table 3. Name, Flow Direction and Branching of Meridians in Mawangdui Silk Manuscript and Huangdi's Internal Classic

WHO	Mawangdui Silk Manuscript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Mawangdui Silk Manuscript Zu Bi Shi Yi Mai Jiu Jing		Huangdi's Internal Classic, Ben shu in Miraculous Pivot		Huangdi's Internal Classic, Jing mai in Miraculous Pivot	
	Flow direction	Branching	Flow direction	Branching	Flow direction	Branching	Flow direction	Branching
LU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fugal	○
LI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ST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fugal	○
SP	Centrifug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HT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fugal	○
SI	Centrifug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BL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fugal	○
KI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PC	-	-	-	-	-	-	Centrifugal	○
TE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GB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fugal	○
LR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Centripetal	○

에서 체간으로 향하여 각 맥들은 한 맥이 끝나는 곳에서 다른 맥이 시작하는 식으로 이어져 순환하는 여환무단한 구조로 이어진다. 또 모든 경맥에서 분지를 낸다(Table 3).

고찰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장사 인근에 위치한 마왕퇴 한묘에서 3개의 전한고묘를 차례로 발굴하였는데, 특히 3호 한묘에서 상당량의 백서, 죽간, 목간이 출토되었으며 의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음양」과 「족비」은 두 의서의 내용적인 특징에 따라 명명되었는데, 두 의서는 똑같이 11개의 경맥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 하나의 의서는 음양의 순서로 또 다른 하나는 족비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치법으로 그 맥에 뜸을 뜬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음양」, 「족비」로 이름 붙이게 되었다²⁴. 「음양」과 「족비」은 비궤음맥(臂腕陰脈)이 없는 11경맥만이 기술되어 있으며 『내경』에서도 「본수」에서 수궤음맥(手腕陰脈)이 없는 11경맥의 형태가 보인다. 「경맥」에서 심주수궤음심포락지맥(心主手腕陰心包絡之脈)이 추가되어 십이경맥이 형성되었으므로, 「음양」과 「족비」이 경락학설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초기 자료임을 알 수 있다⁵. 「음양」과 「족비」을 바탕으로 마왕퇴 『백서』와 『내경』에서 경맥 명칭과 분포 특징에 대한 기술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양」에서 경맥 명칭을 특징적인 인체부위로 명명하거나 삼음삼양만으로 나타내었다. 「음양」의 견맥(肩脈), 이맥(耳脈), 치맥(齒脈)의 경우, 그 유주를 살펴보면 견맥은 “귀 뒤에서 시작하여 어깨로 내려오며 윗팔의 뒷쪽면으로 나와 손등으로 올라간다”²⁵라고 하였었고, 이맥은 “손등에서 시작하여 아래팔 앞쪽면, 노뼈와 자뼈 사이

로 노뼈 안쪽모서리, 팔꿈치 안쪽으로 나와 귀 가운데로 들어간다”²⁶고 하였으며, 치맥은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의 뒤쪽에서 시작하여 아래팔뒤기쪽면으로 나와 팔꿈치 안쪽으로 가 윗팔로 올라가 볼쪽으로 뚫고 가 치아카운데로 들어가 코를 끼고 지낸다”²⁷라 하여 유주상에 존재하는 어깨, 귀, 치아로 경맥을 명명하였다. 또한 「음양」에서 6개의 족경을 거양맥(鉅陽脈), 소양맥(少陽脈), 양명맥(陽明脈), 태음맥(太陰脈), 소음맥(少陰脈), 궤음맥(厥陰脈)이라 하여 족을 붙이지 않고 삼음삼양으로만 명명하였으며 이는 「족비」의 족태양맥(足太陽脈), 족소양맥(足少陽脈), 족양명맥(足陽明脈), 족태음맥(足太陰脈), 족소음맥(足少陰脈), 족궤음맥(足厥陰脈)에 상응한다²⁸. 「족비」의 경맥 명칭이 모두 비(臂)와 족(足)을 포함함과 동시에 삼음삼양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반해 「음양」의 비양경(肩陽經)은 견(肩), 이(耳), 치(齒)와 같은 인체부위로만 나타내고 있고, 「음양」의 족경은 모두 족을 붙이지 않고 삼음삼양만으로 명명되어 있다. 이러한 경맥 명칭의 다양한 형태로 보아 경맥 명칭 형성의 과도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양」의 경맥 명칭만 놓고 볼 때 족경에서 삼음삼양으로 경맥 명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 비경의 경맥 명칭에 삼음삼양이 도입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²⁹.

『영추』의 경맥 명칭에 사용된 장부가 경맥 순행에서 일관되게 언급되어 있는 것에 비해 마왕퇴 『백서』의 경맥 명칭에 장부가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맥 순행에서도 장부에 대한 언급이 드물고 비궤음맥(臂腕陰脈)이 빠진 11개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초기 경맥학설에서 제시한 것은 인체 체표의 상하를 연계시킨 규율로 내장과의 연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³⁰ 경맥 명칭에 장부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음양」과 「족비」에서 수경이 5개이고 족경이 6개인 이유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소음무수설(少陰無俞說)의 영향을 받은 모습인 오장육부(五臟六腑) 체계의 영향

이라고 주장한 보고⁷⁾가 있으나 초기 경락 형성 시에 내장과의 연계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오장육부 체계의 영향으로 인해 11개로 구성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1개 경맥이 형성된 각각의 선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족경과 수경이 각각 6개로 완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족경이 먼저 완성된 이후 수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마왕퇴 백서를 차치하더라도 『영추·근결』편에서 수경의 내용 없이 족경만 언급하고 있는 사실과 『영추·경별』과 『영추·경근』에서 족경을 먼저 기술하고 수경을 뒤에 기술한 사례 등을 근거로 분석해 볼 때 경락이 족경을 중심으로 먼저 형성된 후 수경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장부가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족비」의 비태음맥(臂太陰脈)은 “근(어제혈부위) 가쪽 모서리를 따라 위팔 앞쪽면을 지나서 겨드랑이 내측으로 나와 심으로 들어간다”³¹⁾라고 하였고, 「음양」의 비거음맥(臂鉅陰脈)은 “손바닥 가운데서 시작하여 아래팔 앞쪽면, 노뼈와 자뼈 사이로 나와, 노뼈의 안쪽모서리, 위팔노근(brachioradialis muscle)의 위로 나와, 아래팔에서 나와 안쪽으로 심장으로 들어간다”³²⁾고 하여 심과의 연계를 나타내고 있다. 「음양」의 소음맥(少陰脈)은 “안쪽 복사뼈의 바깥쪽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장딴지를 뚫고 오금 중앙으로 나와서 척추를 뚫고 올라가 신(腎)과 이어지고 허벅지의 좌우 양측을 끼고 흐른다”³³⁾고 하여 신에 연결한다고 하였고, 「족비」의 족소음맥(足少陰脈)은 “안쪽 복사뼈 뒤쪽 오목한 곳에서 시작하여 장딴지를 뚫고 올라가 다리오금으로 들어가서 넓적다리로 나와 복부로 들어가 척추안쪽을 따라 올라가 간으로 나와서 겨드랑이로 들어가고 혀로 이어진다”³⁴⁾라고 하여 간을 지난다고 하였는데, 「경맥」의 신족소음지맥(腎足少陰之脈)의 유주³⁵⁾에서 속신(屬腎), 종신상관간격(從腎上貫肝膈)이라 한 것과 연관된다⁴⁾. 「음양」의 태음맥(大陰脈)은 “위부(胃部)에서 시작하여 넓적다리 안쪽 아래 모서리와 장딴지 위모서리로 나와 안쪽 복사뼈의 위모서리로 나온다”³⁶⁾고 하여 위(胃)와의 관련을 말하였고 이는 「경맥」의 비족태음지맥(脾足太陰之脈) 유주³⁷⁾에서의 속비락위(屬脾絡胃)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음양」, 「족비」경맥 순행에서의 장부 언급이 『영추』에서와 같이 장부배속과의 어느 정도 연관성은 보이지만 유주부위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경맥」과 같이 경맥을 특징짓는 주요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초기경맥에서는 삼음삼양 개념을 통해 인체를 구분하였으며 「경맥」과 같은 오장육부의 개념은 마왕퇴 『백서』 이후에 경락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왕퇴 『백서』와 「경맥」의 유주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면 순행 방향과 분지와 본경의 구분이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음양」, 「족비」의 경맥은 대부분 구심성으로 흘러 독립적인 분포형태를 보

인다. 「족비」에서는 모든 맥이 사지에서 시작해 흉복부나 머리에서 끝나는 구심성으로 순행한다. 「음양」에서는 9개 맥이 구심성으로 순행하며, 견맥은 귀 뒤에서 손등으로³⁸⁾, 태음맥은 위(胃)에서 내측 복사뼈 위쪽으로³⁹⁾ 유주해 원심성을 보인다. 「음양」에서 견맥과 태음맥에 해당하는 「경맥」에서 소장수태양지맥, 비족태음지맥은 구심성으로 순행한다. 반면, 「본수」에서 각 경맥은 사지말단에서 시작하여 체간을 향해 흐르며, 「경맥」에서는 수삼음맥(手三陰脈)은 체간에서 손끝으로 향하고, 수삼양맥(手三陽脈)은 손끝에서 머리로 향하고, 족삼양맥(足三陽脈)은 머리에서 발끝으로 향하고, 족삼음맥(足三陰脈)은 발끝에서 체간으로 향하여 각 맥들은 한 맥이 끝나는 곳에서 다른 맥이 시작하는 식으로 이어져 순환하는 여환무단한 구조로 이어진다. 「경맥」에서 모든 경맥이 이어진 형태가 되기 전까지 「음양」, 「족비」에서는 경맥이 이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순행한다. 그러므로 경맥 유주 방향은 경맥 발전 과정에서 「음양」, 「족비」에서 「경맥」의 방향으로 재정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음양」, 「족비」에서는 분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경맥의 분포가 단순하게 나타난다. 「음양」에서의 맥은 모두 분지가 없고, 「족비」에서는 2개의 맥이 분지를 내며 「경맥」에서는 모든 경맥에서 분지를 낸다. 「족비」의 족태양맥에서 “다리오금에서 하나의 지맥이 나와서 엉덩이 아래쪽으로 들어간다”⁴⁰⁾, “머리 쪽에서 하나의 분지가 나와 얼굴 아래쪽으로 가지를 내 귀로 들어간다”⁴¹⁾라 하여 「경맥」 방광족태양지맥(膀胱足太陽之脈)에서 “그 분지가 허리가운데를 따라 아래로 가 척추를 끼고 엉덩이를 뚫고 가 다리 오금 가운데로 들어간다”⁴²⁾, “분지가 정수리를 따라 귀 맨 윗부분에 이른다”⁴³⁾한 것과 유주부위가 유사하다. 「족비」의 족소양맥은 “바깥 복사뼈의 앞쪽에서 나와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로 가지를 낸다”⁴⁴⁾, “옆구리에서 나와 가지를 내어 어깨로 간다”⁴⁵⁾고 하였는데 「경맥」의 담족소양지맥(膽足少陽之脈) “무릎의 바깥쪽 모서리로 나와 종아리뼈의 앞쪽으로 내려와 종아리뼈 아래, 바깥 복사뼈 위 오목한 곳으로 내려와 바깥 복사뼈 앞으로 나온다”⁴⁶⁾, “목의 수소양맥의 앞쪽을 타고 내려와 어깨 위에 이르러 수소양맥의 뒤쪽으로 나와 빗장뼈 위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로 들어가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가 가슴을 따라 제 11, 12 늑골을 지난다”⁴⁷⁾는 경맥의 흐름과 부위가 비슷하다. 「경맥」에서 모든 경맥이 몇 개의 분지를 내 종행과 횡행으로 이어져 인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족비」에서 분지는 개수가 적고 분포가 작으며, 「경맥」에서의 유주방향과 부위가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분지와 본경의 구분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경맥은 유주에 있어 삼음삼양으로 인체를 앞면, 뒷면,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음양개념을 통해 표리를 구분하고 있다.

양다리를 붙이고 양팔과 손바닥을 마주하여 붙인 옹그린 경락학적 자세(meridianological position)를 기준으로 할 때 체간에서는 양맥이 인체 표면을 주행하고 음맥은 주로 체간의 중심부로 주행하게 되는데 「음양」, 「족비」에서 장부와의 연관성이 음맥에서 먼저 인식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팔에서는 자뼈를 기준으로 태양맥은 바깥쪽에 소음맥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노뼈를 기준으로 양명맥은 바깥쪽에 태음맥은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뼈와 노뼈 사이에서 소양맥은 바깥쪽에 꺾음맥은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리에서는 정강뼈를 중심으로 앞쪽에서 양명맥이 바깥쪽에 태음맥이 안쪽에 위치하고 뒤쪽에서 태양맥이 바깥쪽에 소음맥이 안쪽에, 중간에는 소양맥이 바깥쪽에 꺾음맥이 안쪽에 위치하여 태양과 소음, 양명과 태음, 소양과 꺾음이 짝을 이뤄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초기경맥에서는 표리관계를 통해 인체를 구분하는 삼음삼양이 경맥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사고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동양철학이 중국 춘추시대 중기 음양론이 정립되어 주류를 이루다가⁴⁸⁾ 진한시기에 오행론이 도입되어 발달하게 되었고 오행론이 의학이론으로 접목되면서⁴⁹⁾ 인체 장부를 오행론적으로 분류하고 경락 명명에도 장부명칭이 도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왕퇴 『백서』 「음양」 「족비」의 경맥 명칭과 분포 특징을 「경맥」과 그것과 비교했을 때 동양철학의 중심이론 중에서 음양-삼음삼양이 초기 경맥 형성의 주요 개념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

마왕퇴 『백서』의 경맥 명칭은 『내경』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마왕퇴 『백서』 시기에는 경맥 명칭에서 삼음삼양 개념을 위주로 명명하였고 장부 개념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내경』시기에 가서 경맥 명칭에 구체적인 장부 개념이 추가되었다. 경맥 유주에서도 마왕퇴 『백서』시기에는 심(心), 위(胃), 신(腎), 간(肝)과 같은 장부가 간혹 언급되기는 했으나 『내경』 시기 경맥 유주에 언급된 장부와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왕퇴 『백서』 시기의 장부에 대한 인식은 초기단계로 보인다. 마왕퇴 『백서』 시기에 이미 경맥 유주 분포에 있어 삼음삼양으로 인체를 앞면, 뒷면, 측면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음양개념을 통해 표리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음삼양은 초기 경맥의 명칭뿐만 아니라 분포(유주) 특징을 구분하는 중심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초기 경맥 형성의 중심사고체계가 삼음삼양이었음을 환기하고 앞으로 삼

음삼양 개념에서 발전된 개합추 또는 표본중기론에 대한 연구와 임상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97.
2.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79.
3. Eun NG. A New Understanding on the Five Phase Theory. 1st ed. Seoul: Bubun publishing company. 2000 : 88.
4. Yoon JH, Kim GS.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Zu bi shi yi mai jiu jing ,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and Jing mai in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Journal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Dongguk University. 1992 ; 1(1) : 122.
5. Son GL, Park HG. A study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eridian vessel system (I). - Focusing on 『Shi yi mai jiu jing』 and 『Miraculous Pivot』 -. Journal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Dongguk University. 1997 ; 6(1) : 49-50.
6. Lee JH, Yoon JH. A study of <zu bi shi yi mai jiu jing>. The journal of korea Acupuncture & Moxibustion. 1998 ; 15(1): 181-200.
7. Lee JH, Yoon JH. A study of <yin yang shi yi mai jiu jing>. The journal of korea Acupuncture & Moxibustion. 1999 ; 16(2): 139-179.
8. Tian JH, Wang L. A study on pathways of meridians in Mawangdui 『Silk Manuscripts· Jing mai』. Zhejiang Zhongyi Zazhi. 2001 ; 36(7) : 310-311.
9. Zhang WB. Traditional Meridian Concepts and Modern Meridian Research. Chinese Journal of Basic Medicin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3 ; 9(12) : 44-47.
10. Shen GQ, Gong L, Fang M, Shao S, Sun WQ, Zhang XL. A study on the earlier system of meridian sinew-meridian and collateral. Shanghai J Acu-mox. 2014 ; 33(1) : 72-74.
11.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20.
12.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0-20.
13.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9.
 14.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20-21.
 15.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79-83.
 16.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0-20.
 17.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9.
 18.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20-21.
 19.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79-83.
 20.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0-20.
 21.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9.
 22.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20-21.
 23.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79-83.
 24. Park JH. The comparison of meridian theory between Huangdi's Internal Classic and Mawangdui Silk Manuscripts.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2002 ; 27(3): 7-8.
 25.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4.
 26.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4-15.
 27.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5.
 28. Kim YJ. A study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theory in the ancient Mawangdui books of oriental medicine and Huangdi's Internal Classic.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5 ; 9 : 67.
 29. Huang LX. A brief academic history of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aipei. Ji-um; 2002 : 204.
 30. Huang LX. A brief academic history of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aipei. Ji-um; 2002 : 288.
 31.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7.
 32.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9.
 33.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7.
 34.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5.
 35.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81.
 36.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5.
 37.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80.
 38.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4.
 39.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5.
40.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
41.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1.
42.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81.
43.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81.
44.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3.
45. The Research Team of Mawangdui Hanmu Silk Manuscripts. Hanmu Silk Manuscripts Osibi-byeongbang. 1st ed. Beijing: Munmul publishing company. 1979 : 3.
46.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82.
47. Hong WS. Miraculous Pivot of Huangdi's Internal Classic. 1st ed. Seoul: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ublishing company. 1985 : 82.
48. Yang GC, Poong WR. Research on the Yin-Yang and Five Phase Theory. 1st ed. Seoul: Shinji publishing company, 1993 : 43.
49. Eun NG. A New Understanding on the Five Phase Theory. 1st ed. Seoul: Bubun publishing company. 2000 : 88.